

朝鮮朝 上流住宅의 家事空間에 關한 生活文化的 考察

—The Cultural Life Study of the Housekeeping Space
of Chosun Dynasty Upperclass Housing—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길표

강사 주영애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 Lee, Kil Pyo

Instructor: Ju, Young Ae

목 차

I. 서론

II. 문헌고찰

III. 사례조사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the basic formative elements of housekeeping space of our cultural life which are worthy to succeed and develop by reevaluating in modern view and to reveal what we should maintain from the women's view of the housework in those days.

In this study, outlook on Chosun Dynasty housekeeping is based on the norm of the women in those days. The research on the housekeeping space for Chosun Dynasty upperclass is focused on the house built from early till late Chosun Dynasty, which is now a cultural asset.

As a result, norm of Chosun Dynasty have created a social wide atmosphere for women to devote herself to the housekeeping.

Moreover the constructions of Chosun Dynasty's upperclass are affected by Korea's natural environment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Primary factors for natural environment are building materials and the change of seasons. Because of changeable seasons, there were places for storing massive commodities. The other primary factors for socio-cultural environment affecting housekeeping space were social positions, and extended family system, worshipping the ancestors standard of living, the theory

of "Poong Soo"(風水, a kind of geomancy) and thought of "Yin and Yang, Five Elements" (陰陽五行) and popular belief of that time.

Affected by these two environments, the characteristics of housekeeping space for Chosun Dynasty are ; the main building of the house was used as a diverted area for women to work, and was reconstructed for household affairs. There were inefficient points in the housekeeping space of that time and the space remained stagnant because of the restricted sex and the social position of housekeeping doer. But you could find some points that are efficient and functional to adjust in those living conditions. The storehouse, storage barn, shed and soyjar terrace are the specialized storing place, according to the ki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modities. The kitchen, for example, is the combinations of many abilities. It is not only for cooking or heating the room, but also for storing drinking water. The hall which was the storing place, housekeeping place and also the place for family events are used as a diverted place. The linked arrangement of kitchen, store house, boudoir and the other rooms. In addition, we can see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kitchen for more than two people could work in.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에서 가사공간은 대표적인 가정생활문화 창조의 공간이다. 즉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사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서는 가족의 의식주 생활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이루어 그를 전승하게 된다.

가정생활문화는 오랜 인류의 슬기로운 삶의 역사적 산물의 축적으로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형식을 띠게 되는데 (이길표, 1987, 1) 우리의 생활문화는 오랜세월 중국문화권에 속하여 그 영향을 받으며 우리 고유의 문화로 토착화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조선조는 생활문화가 근대를 거쳐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로 우리 민족으로서의 고유문자가 창제되어 한민족의 자주적인 문화가 발전되던 시기였으므로 당시의 생활의식과 문화는 어느시대의 그것 보다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닌 생활문화로 볼 수 있겠다.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주거는 그 형태와 구성이 물리적 현상이나 우연한 요건으로부터 유래되는 것

이 아니라 한민족의 민간신앙, 가족관계, 사회구조, 인간관계 및 그 필요성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윤장섭, 1979, 16)이며 인간생활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 소멸, 창조되는 것이므로 주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연히 당시의 풍토와 사회가 엮어내는 역사의 참모습인 그 공간에서 행해졌던 생활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생활은 가족중에서도 여성 특히 주부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설명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여성이 그 생활의 중요한 관리자가 되어온 때문이다. 전통사회의 여성들은 사회 경제적 제도와 유교적 규범질서 속에서 가내로 활동영역이 제한되어 학교교육과 같은 외재적 제도적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나, 가정에서 조부모 부모로부터 의식주생활을 비롯하여 육아 및 가정의 운영방식등 각종 교육을 받아왔고, 이를 가사활동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이와같은 삶의 질서는 주택내에도 나타나 개인의 위치와 역할에 따른 활동공간이 구획되었다. 특히 조선조 상류주택은 일반적으로 민가와는 달리 신분과 성별에 따라 거주공간이 각각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여성들은 독립된 생활공간인 안채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안채를 주로 가사를 위한 공간

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여성의 가사관과 그들이 활동했던 가사공간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것은 전통생활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통주택의 가사공간을 비위생적이고 비능률적인 결함을 지닌 것으로 비판적 평가를 해온 우리의 왜곡된 시각에 대해 재고할 바를 찾아 보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생활문화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조선조 상류주택 사례에 나타난 가사공간과 당시 여성들의 가사관을 고찰함으로써 전통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의 현재, 미래의 삶에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생활문화의 영향을 되새기며, 현대의 가정생활에 적용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할만한 생활문화적 가치를 토대로 생활상을 배우고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조선조 상류주택의 가사공간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하였다.

조선조 여성의 가사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시 여성들의 생활규범서가 되어 왔던 「小學」, 昭惠王后 「內訓」, 李滉(傳)의 「규동요람」, 李珣의 「擊蒙要訣」, 宋時烈的 「戒女書」, 曹大家의 「女戒」, 宋若昭의 「女論語」, 仁孝文皇后의 「內訓」, 王節婦의 「女範」을 비롯하여 洪萬選의 「山林經濟」, 李德懋의 「士小節」, 憑虛閣 李氏의 「閨閣叢書」 등을 문헌고찰 하였다.

그리고 조선조 상류주택 가사공간의 위치에 영향을 미친 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과 「三國志」 李重煥의 「擇理志」, 徐有瓚의 「林園經濟志」, 丁若鏞의 「茶山論叢」, 「雅言覺非」, 洪萬選의 「山林經濟」, 洪錫謨의 「東國歲時記」, 등을 고찰 하였다.

조사대상 가옥의 선정기준은 살림채로서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급적 조선조 초기인 1400년대부터 말기인 1800년대에 지어진 양반들이 기거했던 상류주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구로서의 가치가 공

식적으로 인정되는 문화재를 선택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조 상류주택은 주로 영남사림파에 속하는 양반 계층의 주택이므로 조사대상 가옥은 주로 지역적으로 경북 안동과 경주 근처의 월성으로 한정되었다. 대상가옥은 손동만씨가옥(1457년 : 민속자료 23호), 관가정(1500년대 : 보물 442호), 양진당(1600년대 : 보물 306호), 충효당(1600년대 : 보물 414호), 이원용씨가옥(1730년 : 민속자료 75호), 이동기씨가옥(1780년 : 민속자료 76호), 임경당(1530년 : 유형문화재 46호), 선교장(1800년대 : 민속자료 5호)등 이었다. 이곳을 직접 답사하여 사례를 조사했고, 그곳 거주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당시의 가사활동 및 생활상을 추론해 보았다. 단, 면담 및 사례수가 제한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II. 문헌고찰

1. 조선조 여성의 생활규범과 가사관

조선조 상류주택의 가사공간에 대한 생활문화적 고찰을 위해서는 당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온 가사의 내용과 가사관에 대하여 살펴보므로써 당시 주택의 가사공간을 여성들의 가사활동과 더불어 분석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규범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의 규칙·기준 또는 양식으로(배용광, 1984.9)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며, 일정한 추구되어야 할 목적에 관한 표준과 그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의 현시적이고 묵시적인 지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사회문화 집단에서 요구하는 규범적 삶을 삶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제 구실을 다하고 도리에 맞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도리에 맞게 살아가기 위한 규범이 조선시대에는 특히 유학의 철학과 관계가 깊었다.

우리나라에 유학이 들어오고 사회도덕으로 권장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의 일이나 조선조에 이르러 건국이념으로 강조되면서 확립되었다고 하겠다.

조선조는 주자학을 기초로 하는 유학사상을 인간

의 삶에 있어서의 바탕으로 규정하고 사대부층 및 민중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보급, 확대시켜왔다. 따라서 조선조에서의 규범은 유학이념에서 유래한 仁의 실현을 그 근본으로 하였으며, 仁은 삼강오륜의 달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었다. 즉,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는 부자간에 孝와 慈로 형제사이에는 友와 弟로 그리고 인륜의 근본이 되는 부부간에는 和를 근본으로 한 柔의 관계를 유지하므로써 仁에 이르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생활규범은 여성의 가정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가사활동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즉, 가정에서 여성들은 가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을 삶의 가치기준으로 삼아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며 인의와 경애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는 내외법과 부인의 四德 함양등의 규범을 통하여 강조되었다.

조선조의 각 규범서에서 당시 가사의 내용을 토대로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가사관을 다음 몇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은 자신의 당연한 소임으로서의 가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당시 여성 규범의 하나로 생활교육에서 강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시료된다. 小學 入校, 組大家의 女係 婦行, 誦約所의 女論語 學作·訓男女·師父, 小學 加言, 昭惠王后 內訓 夫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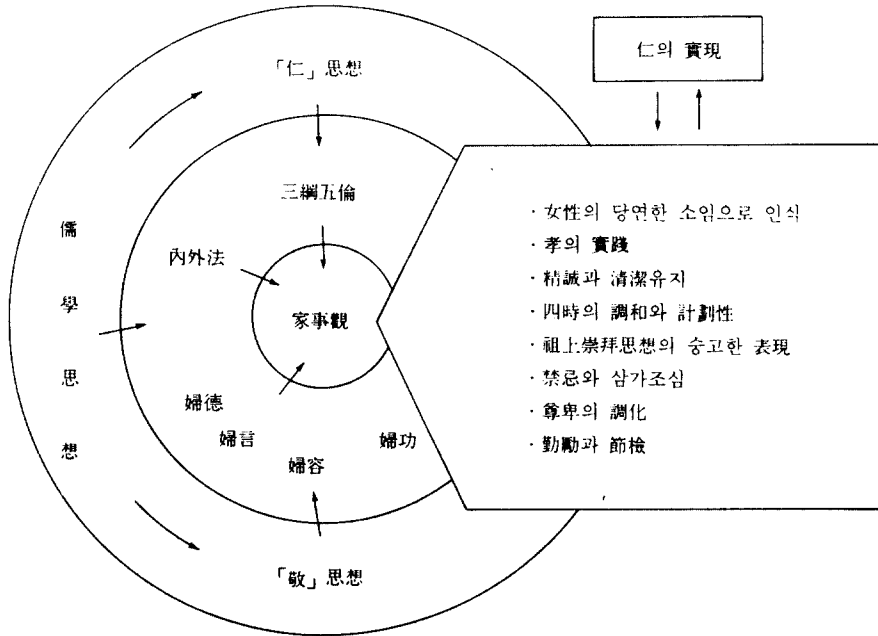
戒女書, 士小節 夫衣服飾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둘째, 여성들은 가사를 효의 실천과 구식된 자의 도리로 이해하고 실천하므로써 효위주의 가사관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학적 철학의 규범질서에 기준이 되는 仁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자세는 가정에서 올바른 자녀 구실을 하는데서 부터 이루어 진다고 믿어 孝의 실천이 결국 忠으로까지 이어지고 나아가 인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여성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며, 가사에 임하므로써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일지라도 가족의 생명을 유지 시킨다는 의미와 더불어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윤리를 지켜왔던 것이다.

셋째, 사계절에 있는 한반도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가사에는 항상 四時의 調和와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준비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한반도의 기후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돌아올 계절을 준비하며 지나간 생활을 정리하는 가사활동이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절기에 맞추어 미리 의복과 음식을 장만하고,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을 담그고 채철 식품을 이용하여 저장음식을 만들며 집안밖을 손질하는 등 항상 앞으로 다가올 절기에 맞추어 먼저 규모있게 계획하고 대비하는 가사활동

〈표 1〉 조선조 규범서에 나타난 가사관

서명 가사관	小學	昭惠王后 內訓	규동요람	戒女書	女戒	女論語	仁孝文皇后 內訓	女範	山林 經濟	士小節	閨閣 業書
여성의 당연한 소임	○	○	○	○	○	○				○	
孝의 실천	○	○		○	○	○	○				
정성과 청결						○				○	○
四時의 調和와 計劃性									○		○
조상숭배				○						○	
금기와 삼가조심									○	○	○
손님접대시 尊卑의 調和				○		○				○	
勤勵와 節儉		○		○			○			○	



〈圖 1〉朝鮮朝 女性的 家事觀에 影響을 미친 諸要因과 家事의 特徵

이 되었다.

다섯째, 조선조 여성들의 가사관에는 조상숭배사가 담겨 있어, 제례를 통하여 자신의 뿌리에 대한 겸허한 자세가 표현되어 왔다. 즉 제례는 가정에서 유학 이념 아래 조상숭배사상의 숭고한 표현이 되어 온 바라, 제례 마련에 기울었던 더하고 덜함이 없도록 면일 주도하게 연중 계획을 세우고, 정성과 청결함은 물론 삼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다.

여섯째, 가사에 임할 때는 금기해야 할 내용이 있어 가정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여 삼가는 가사관을 지녀왔다.

일곱째, 조선조 여성의 가사관에는 존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고 사료된다. 이는 손님 접대를 위한 규범서의 가르침을 토대로 알 수 있다. 주부로서의 여성은 남편의 사회적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 남편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의 일을 보완하여 가사중심의 생활을 하였으며, 특히 공식적 가치가 크게 부여 되지 않았을지라도 가사는 현실생활에서 극히 중요한 일임을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여

감당해 나가므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덟째, 당시 가사관에는 근려와 절검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사치를 경계하며, 절약과 검소를 권장한 규범서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규모있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절약하여 반드시 돈과 곡식의 쓰고 남는 바를 기록하므로써 낭비와 사치가 없는 올바른 가계를 유지하도록 훈계하여 왔던 것이다.

조선조 규범서를 토대로 살펴본 당시 가사관의 특징은 외면적으로는 여성의 고유 소임으로 또한 효의 실천 방법이며, 사시와 존비에 맞도록 정성과 청결을 다하며 근려와 절검을 지켜나가는 방대하고 과중한 일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여성의 규범이 되어온 사덕 실천의 의식이 내포되어 있었고, 자신의 조상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여 항상 뿌리에 대한 겸손한 자세로 삼가 조심하며 일하는 규범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2. 조선조 상류주택의 가사공간

조선조 상류주택의 가사공간의 위치나 규모 등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신분제도나 남녀생활의 구분, 대가족제도, 조상숭배 사상등 사회문화적인 규범, 그리고 풍수설, 음양오행 사상, 민간신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주택의 방향을 남쪽이나 동쪽으로 잡아야 좋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이와같은 향이 이상향이라는 의식이 잠재되어 내려와 「살림집은 남향함을 으뜸으로 하고 동향하는 것을 버금으로 친다. 북향을 한다거나 서북향을 하는 것은 불가하고 서쪽에 문을 내는 것도 불리함이 많다」(서유구, 1983, 463)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청과 건넌방이 남향함에 따라 안방과 부엌은 자연히 동향하게 되었다. 즉 자연적 채광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향을 택하여 건물을 배치하므로써 가사공간인 부엌은 동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부엌에는 보통 창살없이 구멍만 뚫린 여닫지 못하는 투각 또는 천공의 창인 봉창이 있는데 이는 「한자로 漏라고 쓰는데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은 벽을 뚫고 그곳에 나무를 박아 만든 창을 말한다」(정약용, 1936) 이는 일종의 배기구멍으로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땀감에서 나는 연기나 솔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음식냄새등을 뽑아 내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채광과 통풍을 위한 자연적 환경에 적응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인 규범도 조선조 상류주택의 가사공간 위치 및 크기 선정에 영향을 미친 바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는 생득적 지위를 강조하는 신분제 사회였다. 신분에 따른 가사·가대 제한에서 가사공간에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내용은 없으나 가대의 규모로써 그 규모를 짐작 할 수 있다. 상류주택에 있어서 총 건평에서 수를 뺀 나머지의 間수는 정침과 사랑, 그리고 부속건물로 나뉘므로(윤정옥, 1981, 42) 대표적인 가사공간인 부엌은 따로 독립된 채로 나뉘지 않고 정침속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부엌의 규모는 정침의 규모에 비추어 유추해 볼때, 가사의 전체규모에 따라 부엌의 규모가 다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류주택의 가사공간에는 부엌이외에도 찬방, 곳간,

고방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포함 되므로, 사회경제적 신분이 높고 부가 있던 양반들이 기거한 상류주택에는 소작에 의해 거둬들인 곡식과 물품들을 저장할 수납공간이 서민층 보다는 더 많이 필요했을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유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조선조 상류주택 건축시 남녀 생활규범으로 인한 공간의 분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안채 공간의 대부분에서 그들의 소임인 가사를 하도록 사랑채와 안채가 별채로 구성되게 하였고, 안채는 가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을 건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방위의 좌향을 중시하여야 하는데 팔괘에 의한 8가지 방위 가운데, 乾坤艮兌(북, 남서, 북동, 서)를 西四宅, 坎離震巽(북, 남, 동, 남동)을 東四宅이라 하여 이 팔괘를 길택으로 여겼으며, 집의 방향이 정해진 후에는 대문과 안방, 부엌의 民宅三要가 사택에 오도록 하였다.(주남철, 1986, 71) 이 원리에 의하여 이상적인 길한 방위는 주요 구조부(안방, 대청, 부엌 등)와 대문의 위치가 방위상으로 모두 동사택의 방위안에 배치되거나, 또는 완전히 서사택의 방위로 배치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해석하여 건물과 대문이 동일한 사택에 배치되어 있는 집을 배합집이라 불렀다. 이와 반대로 본 건물과 대문의 방위가 동서택 또는 서사택이 서로 혼용되어 있는 집은 부배합 집으로서 길하지 않는 방위의 집으로 구분된다. 이와같이 동서사택의 이론에 의하면 본 건물의 주요부의 방위가 동일사택에 배합되게 하고 변소, 창고, 하수도 등의 공간이나 사람이 항상 거주하지 않는 방들의 방위적 배치가 사택방위와는 반대의 위치에 두어야 길한 것으로 보았다. 부엌의 길한 방향은 대문과 안방의 방향에 상생함을 구하고 상극을 피하도록 배치된 방위로써 정한다. 즉 동사택의 부엌 위치는 남동, 남, 동북향이 길하고, 서사택의 부엌은 북동, 남서, 서, 동서로 향하게 하는 것이 길하다고 했다. 따라서 대청과 건넌방이 남향하는 경우, 안방과 부엌은 자연히 동향하게 된다. 이는 풍수설과 음양오행사상이 살림공간의 위치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가사공간 형성에 관련된 민간신앙의 영향은 매우 크다. 「대청뒤에 부엌을 내서는 안되며 무릇 청과 당에 부엌을 만들어 놓고 두곳에서 불이 활활 타게 되면 주인이 재앙을 입게 된다. 더러운 흙으로 부엌앞을 막아서는 안된다. 부엌가에 우물을 파면 허모해 진다 우물과 부엌이 마주보고 있으면 남녀가 문란해진다」(홍만선, 산림경제)고 하여 부엌의 위치 선정시 주의하고 삼가야 할 사항을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화신이며 여신인 조왕신을 부뚜막이나 부엌 한쪽 벽에 모시며 가내평안을 기원한 바에서부터 자연재를 이용한 가사공간 형성과 이로써 발생할 가능성 있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의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Ⅲ. 사례조사

1. 조선조 상류주택 사례에 나타난 가사공간 특징의 논의

조사대상 가옥 사례를 토대로 조선조 상류주택 가사공간의 특징을 전용성, 능률성, 기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용성

조선조 상류주택 공간 형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채(棟)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유학의 생활질서와 신분제도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으로 안채, 아랫채, 사랑채, 별채(뒷채), 행랑채로 나뉘어졌다. 안채는 주로 윗채와 아랫채가 있고 윗채는 주로 윗채와 아랫채가 있는데, 윗채는 주부가 기거하는 곳으로 안방, 대청, 부엌, 찬방이나 찬마루 등이 있었고, 접대와 가사중에서도 계획하고 기록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아

랫채에는 찬모, 반빗아치 등 여자 하인들이 생활하는 곳이었으며 광, 헛간 등이 있어 작업공간이 되었다. 안채의 대청은 대부분 방보다 넓은 공간으로서 추운 겨울 한철을 제외하고는 가족과 대소가의 모임이나 여성들이 둘러앉아 떡을 빻거나 음식을 장만하기도 했으며, 바느질이나 다듬이, 다림질하는 작업장소로도 활용이 되었다. 이외에도 대청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도 이용하였으며 양식을 보관하는 뒤주, 찬장 등을 놓는 등 이 공간의 전용성은 크게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사례조사된 상류주택의 부엌 면적은 12.19㎡(3.7평)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넓은 경우는 24.96㎡(7.6평)나 되었다. 조사대상 가옥 부엌의 면적은 조선조 초기에 지어진 가옥에서부터 말기에 지어진 가옥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와같이 넓은 면적의 부엌은 밥을 짓고, 찬을 만드는 등 음식을 준비하는 취사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동시에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전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넓은 부엌 이외에도 찬방이나 찬마루, 고방 등을 포함한 가사공간이 확보되어 조선조 상류주택의 가사공간은 넓었다고 하겠다.

조사대상 가옥 안채에서 부엌과 찬방이나 찬마루, 광 등이 차지하는 간수를 비율로 나타내면 안채 넓이의 43.8%에서 부터 작게는 10%로 나타나 평균 24.4%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집안의 대소행사를 행하며, 때로는 작업공간까지 겸하게 되는 대청까지 포함시키면 살림공간이 안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보다 훨씬 증가하여 평균 48.2%로 나타나 안채는 주로 가사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전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表 2〉 調査對象 家屋 안채의 부엌面積

구분	孫東萬家氏屋	觀稼亭	養眞堂	忠孝堂	李源鏞家氏屋	李東奇家氏屋	臨境堂	船橋壯	平均
㎡	12.57	13.55	22.65	19.05	12.19	16.81	24.96	15.84	17.2
坪	3.8	4.1	7.4	5.8	3.7	5.1	7.6	4.8	5.2

〈表 3〉 調査對象 家屋의 안채에서 가사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구분		孫東萬家氏屋	觀稼亭	養眞堂	忠孝當	李源鑄家氏屋	李東奇家氏屋	臨境堂	船橋壯	坪勻
①	間	5/16	2/20	7/29	9/27	2/11	3/18	7/6	3/17	24.4%
	%	31.3	10	24.1	33.3	18.2	16.6	43.5	17.6	
②	間	11/16	8/20	11/29	13/27	6/11	7/18	9/16	7/17	48.2%
	%	68.8	40	37.9	48.1	54.5	38.9	56.3	41.2	

① 안채에서 부엌, 광, 찬방 등이 차지하는 間數와 비율

② 안채에서 부엌, 광, 찬방을 비롯하여 대청을 포함한 가사공간의 間數와 비율

2) 능률성

조선조 상류주택의 가사공간을 능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면, 작업자의 작업동작이나 에너지 소모량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입지적 조건에 기준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는 불합리한 면이었기도 하다. 그 이유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로 여자 하인이어서 그의 사회적 지위가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나 실은 취사와 난방을 겸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조사대상 가옥 부엌, 부뚜막의 높이를 조사해 본 결과, 부엌의 부뚜막은 사람이 서서 작업을 할 경우에 기준을 두기보다는 난방을 위한 높이에 맞도록 형성 되었다고 여겨진다. 조사대상 가옥의 부엌, 부뚜막의 높이는 평균 47cm로 서서 일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지기 보다도 난방을 위한 구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작업의 능률성에 문제로 지적되나 한편 부엌 바닥이 낮게 만들어지면서 천정에는 자연 안방에서 연결되는 벽장과 다락이 위치를 잡게 되었는데 이는 부엌에서 작업을 하는데 비능률적인 공간이 된 반면, 가내에서 보관 해야 할 귀중한 물건이나 식품등을 보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수납 공간으로서는 능률적으로 사용된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뚜막 옆에는 각각 0.5m² ~ 0.62m²의 솔이 걸려 있지 않은 일부 면적이 확보되어 작업대의 일부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독대의 거리는 부엌과 다소 떨어져 독립적으로 위치했었으므로 여성들이 음식을 만들 때 작업동선을 길게 만들어 비능률적이었을지 모르나, 장독대의 위치를 본체와 가깝게 배치할 경우는 채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햇볕이 잘 들고, 깨끗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근접하

〈表 4〉 調査對象 家屋부엌 부뚜막의 치수

구분	높이	깊이	폭	솔이 걸려있지 않은 부뚜막의 일부
養眞堂	48cm	77.5cm	255cm	85cm×59cm=0.5m ²
忠孝堂	52cm	71.0cm	248cm	95cm×54cm=0.5m ²
李東奇氏家屋	44cm	77.0cm	410cm	
李源鑄氏家屋	44cm	75.0cm	217cm	129cm×48cm=0.62m ²
평균	47cm	75.13cm	282.5cm	0.54m ²

*옛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부엌에서의 부뚜막 높이, 깊이, 폭을 측정하였으므로 조사대상 가옥이 4가구로 제한되었다.

지 않는 곳에 그 위치가 정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성이 하는 일이 다소 힘들고 불편하다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정성과 청결을 유지하며, 삼가 조심하며 가사에 충실했던 가사관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통가옥의 가사공간이 비능률적 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3) 기능성

사례에 나타난 가사공간은 취사를 하는 부엌을 제외하고 고방, 곳간, 광, 헛간 등이 안채에 하나 이상 있었다. 특히 이러한 수납공간은 각기 수납해야 할 기물의 특성에 따라 저마다 다른 공간으로 구획되고 있는데, 이른바 곡식과 부식재 및 조리기구 등을 주로 수납하는 「고방」과 여러개의 김치독이 땅에 묻힌 채 겨우내내 보관되던 「김치광」, 부엌에서 쓰는 부식품과 곡물류, 농기구 등을 수납하는 「곳간」과 뿔나무를 장기적으로 수납하던 「나무광」, 기타 여러가지 물품을 보관하기도 하고, 우천시 옥외 작업공간이 되기도 하는 「헛간·헛광」등이 존재 하였다. 또한 다락은 부엌 상부 전체에 넓게 생각되며, 부엌문은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재료 운반이 편리하도록 일반적으로 안마당과 뒷마당을 연결하는 2개의 문이 있어 기능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엌의 살창은 배기와 통풍, 채광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었으며, 부엌과 고방, 찬방, 광 등의 부수공간이 바로 연결되어 일을 하는데 기능적인 면이 있었다고 본다.

2. 가사공간의 생활문화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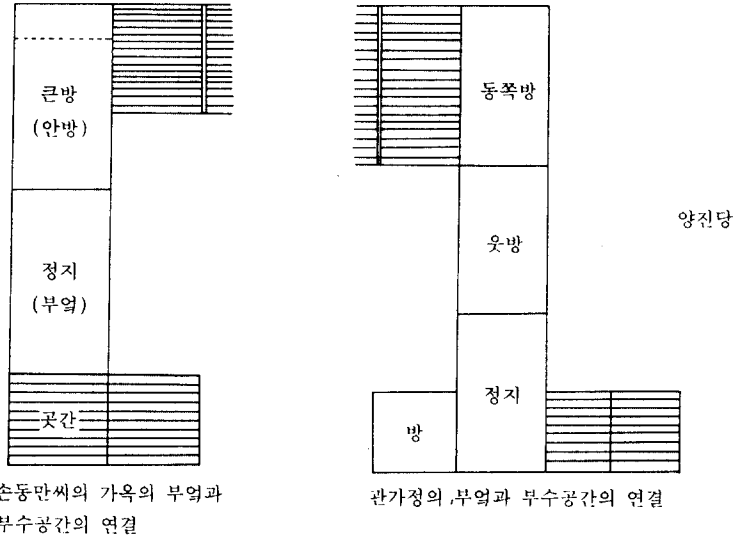
가족의 생명 유지와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인 가사가 이루어졌던 가사공간은 당시의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사의 내용이나 가사공간의 정성에는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우리 생활의 문화적인 가치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은 생활문화적 가치는 우리 선조들의 삶에서 부터 배워 왔고, 또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소중한 뿌리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조선조 상류주택의 사례를 토대로 가사공간의 생활문화적 가치가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 가사공간은 전용성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부엌은 취사와 난방을 겸용하였고, 대청은 가족간의 화목, 제사를 비롯하여 혼사, 생신잔치, 손님접대등 집안의 행사를 치르는 공간으로 또한 가사 활동 공간으로 전용되었고 수납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였다. 따라서 현대주택의 살림공간은 조선조 상류주택 안채의 전용성 있는 공간구성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 시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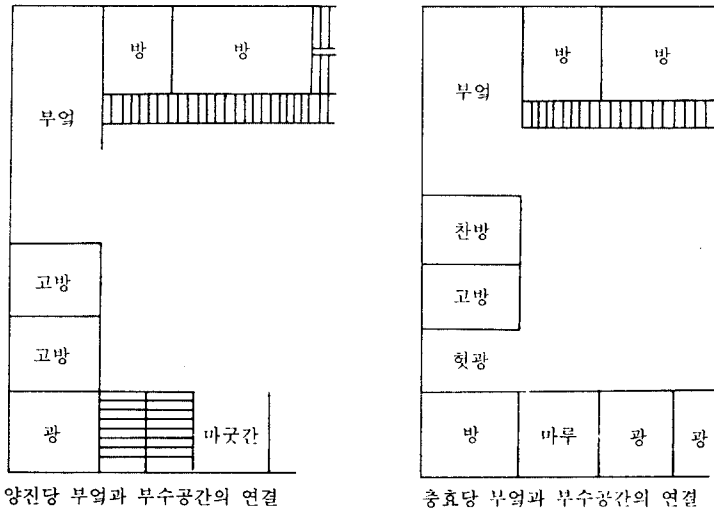
둘째, 가사공간은 기능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이다. 수납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물건을 찾고 수납하는데 요구되는 불필요한 동작을 줄여주므로써 좀더 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토지의 부족현상으로 당시와 같은 넓은 가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공간 계획시

〈表 5〉 朝鮮朝 上流住宅 안채의 가사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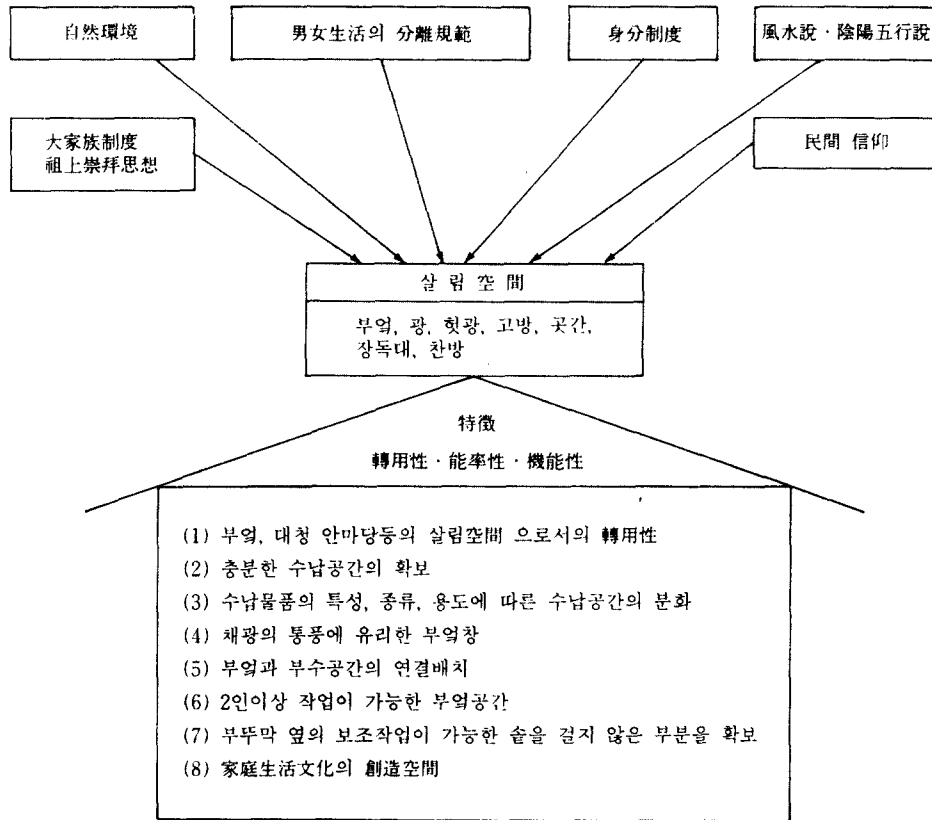
사례	구분	부엌	합살아궁이	찬방	고방	광·헛간 (김치광·나무광·곳간)
1	孫東萬氏 家屋	1	1	.	1	2
2	觀 稼 亭	1	.	.	.	1
3	養 眞 堂	1	1	1(누다락)	.	3
4	忠 孝 堂	1	1	2(누다락)	1	3
5	李源鏞氏 家屋	1
6	李東奇氏 稼屋	1	.	.	.	1
7	臨 境 堂	1	.	.	.	2
8	船 橋 壯	1



〈圖 2〉 부엌과 부수공간의 연결(孫東萬氏 家屋, 觀稼亭)



〈圖 3〉 부엌과 부수공간의 연결(養眞堂 忠孝堂)



〈圖 4〉朝鮮朝 上流住宅 가사空間 形成에 影響을 미친 諸要因과 가사空間의 特徵

쓸데없는 사공간을 최소화하며 수납공간 내의 구획방안이 강구되어 집약적이고 기능적인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엌공간의 배치에는 채광, 통풍, 취사용구 운반 등이 고려 되었다는 점이다. 흔히 부엌의 위치를 정할 때 음양오행설과 풍수사상의 영향을 받아, 현대에 적용할 큰 가치는 없다고 평가하지만 부엌의 위치는 통풍과 채광에 유의하여 정해진 것을 축적된 생활의 지혜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딸감과 음식 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물품을 옮기기에 적합하도록 외부와 연결되는 문을 만들고, 살창을 마련한 것은 전통적 주택을 비위생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으로만 왜곡시켜온 바와는 달리 평가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가사공간의 설비 특히, 부엌의 구조는 개선 되어야 할 점이다. 당시 부엌구조는 취사와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입지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바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지만, 사회변화와 더불어 작업자의 신체적 조건과 작업동선을 고려한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부엌 설비의 개선은 추진 되어야 할 점이다.

다섯째, 가사공간은 충분히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가옥의 평균 부엌 면적은 약 17.2㎡(5.2평)로 나타나고 있어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으며, 더우기 수납공간과 옥외 및 대청 등을 전용성 있는 작업공간으로 활용했으므로 대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기 위한 활동 공간으로 충분하였으리라 사료된다. 현대사

회에서는 가족구성원 간의 가사분담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살림공간계획시에도 전통사회 가옥의 부엌과 같이 여러명의 작업자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가족수·가내활동 규모에 따른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조선조 상류주택의 가사공간에 대한 생활문화적 가치는 현대사회의 살림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 재고해야 할 바를 제시해 준다. 이는 부엌의 위치 설정 및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부엌의 살창, 기능적인 수납공간, 2인이상의 작업자가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옥내의 공간의 확보 등과 같은 점이다. 당시 안채와 사랑채는 엄밀히 구분이 되는 곳으로써 안채는 주부의 생활공간이며 주된 가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용되었고 가사공간은 환경조건에 맞도록 전용성, 능률성, 기능성이 있었으며, 가내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곳으로 가정의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모체가 되어왔다고 생각된다.

IV. 결 론

한 민족의 역사란 쉽게 저버리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것으로 현대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의 생활사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발자취로 현대의 삶을 엮어내기 위한 기초가 되어왔다. 따라서 생활사가 없는 오늘의 생활, 미래의 생활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는 우리의 가정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쳐 전통생활과의 단절을 야기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생활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조선조 상류주택의 가사공간에 대한 생활문화적 고찰을 통하여 현대적 시각에서 재평가 해 봄으로써 선조들의 삶속에서 계승발전 시킬만한 가치있는 당시의 가사관을 살펴보고 가사공간형성의 기준이 된 점을 찾자 하였다.

조선조는 유학적 가치를 종교 차원으로 확대 승화시켰던 사회로 신분과 남녀의 규범절서가 뚜렷이 구별되어 여성들은 가사를 자신들의 소임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가사관은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일이 아닌 생활의 규범이며 삶의 중심적

인 가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여성들은「경」의 내면적 태도의 표현이며 「효」의 실천을 위한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가사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한편 당시 가사관의 구현을 위한 주택내의 규범절서를 비롯하여 풍수설과 음양오행사상 그리고 민간신앙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당시 여성들은 가사공간으로의 전용성을 지닌 안채에서 가사활동에 충실해 왔다. 가사공간은 작업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 조건에 맞추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점도 있었으나 가내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용성 있는 공간으로 능률성과 기능성이 있는 공간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수납물품의 특성, 종류, 용도에 따라 수납공간이 분리되었고, 부엌이 부수공간과 연결 배치 되었으며, 2인 이상이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도록 부엌 면적이 충분했으며, 취사와 난방을 겸한 부뚜막의 구조 등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조선조 상류주택 가사공간의 특징과 당시 가사관을 토대로 현대적 견지에서 생활문화적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그 의의가 깊다. 즉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지켜나갈 바를 찾아볼 수 있다. 선조들의 가사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성을 다하고 분수에 맞도록 생활하였던 바나 효를 실천하기 위한 바는 가사공간이 다소 불편 했을지라도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던 소중한 생활철학 이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시 상류주택 가사공간의 특징에서 부터 재평가해 볼 만한 바는 첫째, 조선조 상류주택의 가사공간 형성에서 수납물품의 종류, 용도, 특성에 따른 기능적인 수납공간 확보의 의미는 현대주택 공간형성시 수납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둘째, 안채는 가사공간으로 전용성있게 활용되었다는 장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통가옥의 큰 특징중의 하나인 전용성을 살려 현대주택에서는 구획된 가사공간 내에서는 여러가지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엌을 체계화 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2인 이상의 작업자가 동시에 일할 수 있는 부엌 공간 구성의 예는 조선조 상류주택 부엌 면적

치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 가사분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부업계획시 참고 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당시 가사관의 시현인 조선조 상류주택 가사공간의 생활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는 당시 생활의 지혜와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으며, 가정생활을 유지시켰던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 상류주택 사례에 나타난 가사공간은 비능률적인 면도 지적되나 생활문화로서의 가치를 논할 때 효율성과 능률성, 기능성의 특징이 지적되었다. 가정생활에는 다소 비능률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그것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생활의 관리자였던 주부가 자신의 편안함만을 찾기보다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가족을 위하고 가정운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변화할 수 없는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여 가족구성원간에 사랑하고 공경하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의복을 관리하고 음식을 만들며 집안을 관리하는 모든 일의 근본정신을 뜻깊은 전통 가정생활 문화에서 찾아 배우고 더욱 발전시키며, 생활 문화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써 과거 생활과의 단절이 아닌 그 문화를 지켜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현대생활에서 이러한 정신을 고양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금장태, 「유교사상과 한국사회」, 성균관대학교 동문화연구회, 1987
- 2) 권정안 외 13인, 「조선조 유학사상의 연구」, 여강출판사, 1988.
- 3) 김경원, 「한국 전통주택의 내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7.
- 4) 김동욱 외 4인, 「한국민속학」, 새문사, 1991.
- 5) 김봉열, 「조선후기 한옥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2.
- 6) 김예원, 「한국의 재래한식 주택과 현대주택에 있어서 평면구성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78.
- 7) 김용직, 「안동 하회마을」, 열화당, 미술문고 59, 1991.
- 8) 김유방, 「문화생활과 주택생활 개선」, 「개벽」, 1923.
- 9)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91.
- 10) 류회옥, 「한국주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4.
- 11) 문홍길, 「개화기 이후 한국 재래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2.
- 12)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7.
- 13) 박 영, 「전통적 수장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14) 박용옥, 「이조여성사」, 춘추문고, 한국일보사, 1976.
- 15) 박제가 저, 이익성 역, 「북학의」, 을유문화사, 1989.
- 16) 배용광,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정신문화연구원, 1983.
- 17) 빙허각 이씨, 정양완 역주, 「규합총서」, 서울, 보진재, 1984.
- 18) 「三國史記」
- 19) 「三國志」
- 20) 「小學」
- 21) 소혜왕후, 정양완 역주, 「內訓」, 학원사, 1988.
- 22) 손승광, 「조선조 한옥에 나타난 인간적 척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 23) 송시열, 「戒女書」
- 24) 신영훈, 「한옥의 역사」, 동아출판사, 1975.
- 25) ———,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2.
- 26) 「女四書」
- 27) 「禮記」
- 28) 우창훈, 「한국 개화기 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 29) 유득공, 이석호 역, 「경도잡지」, 을유문화사, 1988.

- 30) 유중립, 「중보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5.
- 31) 윤장섭, 「한국의 건축문화」, 「대한 건축학회지」, 건축18권 61호, 1974.
- 32) ———, 「한국, 일본 민가건축 비교연구」, 「대한 건축학회지」, 건축 23권 88호, 1979.
- 33) ———, 역, 도라 P.크라우치, 「건축사 - 스톤텐 지부터 마천루까지-」, 이일출판사, 1991.
- 34) 윤정옥, 「한국 전통적 주방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1.
- 35) 윤홍택, 「자연관이 건축공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21권 86호, 1979.
- 36) 이강훈, 「한국건축에 있어서 음양공간의 질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 37) 이평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90.
- 38) 이기서, 「강릉선교장」, 열화당, 미술문고 56, 1985.
- 39) 이길표, 「가례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구조」,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2.
- 40) ———, 「가정생활문화의 미래와 전망」, 「생활문화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창간호, 1987.
- 41) ———, 「도시 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와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1호, 1989.
- 42) ———, 주영애, 「가정경영관과 혼례행례와의 관계연구」, 「성신연구논문집」, 제29집, 1989.
- 43) ———, ———, 「전통사회 여성의 가사작업관에 관한 고찰」, 「생활문화연구」, 성신여대 생활문화 연구소, 1992.
- 44) ———, 김인옥,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남편의 가정경영관과 가사에 대한 의식과 수행」,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4호 1991.
- 45) 이능화, 「조선여속사」, 동문선 문예신서 28, 1990.
- 46) 이덕무, 「士小節」
- 47) 이병욱, 「도시 주거 주생활 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48) 이상백, 「한국사」, 을유문화사, 1962.
- 49) 이상헌, 「18C부터 1910년까지 한국건축의 변천에 관한 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 50) 이영미,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 51) 이원영, 「조선조 주방용 가구와 목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 52) 이유미, 「조선전기 상류주택의 안채 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 53) 이 이, 「격묘요결」
- 54) 이인희, 「이조시대의 주생활에 관한 소고」, 「대한가정학회지」, 제11권 1호, 1973.
- 55) ———, 「우리나라 도시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이인희 교원 정년 기념연구논문집」, 수학사, 1987.
- 56) 이종필 외 3인, 「영남지방 고유취락의 공간구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 57) 이중환, 이영택 역주, 「택리지」, 삼중당문고, 1977.
- 58) 이 황(傳), 「규동요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 59) 임동권,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1982.
- 60) 정약용, 「다산논총」, 이익성역, 을유문화사, 1990.
- 61) ———, 「아연각비」 삼십칠, 여 당전서 제일집 이십사권 신조선사, 1936.
- 62) 정순목, 「조선시대의 교육명저 순례」, 배영사 1991.
- 63) 정인국, 「한국의 건축」, 교양국사총서 14, 1975.
- 64) ———, 「한국 건축 양식론」, 일지사, 1982.
- 65) 주남철,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6.
- 66) ———,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5.
- 67) 최인학, 「한국 민속학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9.
- 68) 최 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 69) 한국민속학총서4, 「민간신앙」, 교문사, 1989.
- 70) 「한국민속대관」, 제2권, 고대민속문화연구소, 1980.
- 71) 「한국사시대구분론」, 을유문화사, 1984.
- 72) 현두용, “한국건축의 양택론에 관한 소고”,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0호, 1978.
- 73) 홍만선, 「산림경제」
- 74) 홍석모, 이석호 역, 「동국세시기(외)」, 을유문화사, 1988.
- 75) 홍형욱, “한국 전통 주거 생활 연구(I)”, 「경희대학교 논문집」, 11집, 1982.
- 76) 황기원, “조선시대 선비계층의 주거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0.
- 77) 南懷瑾·徐芹庭, 「周易今註今譯」, 중화민국, 대만 상무인서관, 1977.
- 78) A.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 - Hall Inc., 1969.
- 79) Wonda W. Olson and Beckyl Yust, “Shared meal preparation in residential Kitchens : implications for Kitchen planning”,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87.